



◎ 웅대한 꿈을 안고

한국중공업(주)은 1962년 9월 창업주 鄭仁永씨에 의해 現代洋行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不毛地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기계공업계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출범한 現代洋行은 개발의 '60년대, 도약의 '70년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성장을 거듭, 오늘의 韓國重工業으로 발전하였다.

1976년 11월 세계적 發電設備 專門製作業體로 성장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귀곡동에 현재의 창원 종합기계 공장을 착공하면서 韓國重工業의(당시 現代洋行) 社運은 많은 시련과 풍상을 겪게 된다.

즉 정부에서 발전설비 산업체를 現代洋行 하나였던 것을 四元化, 二元化로 多元化하면서 현대양행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창원시 귀곡동의 130만평 대지위에 건평 12만평의 세계적 대단위 공장을 IBRD 借款으로 건설하게되자 國內 財閥會社들의 견제와 방해 공작을 받게 되었으며, 공장을 完工하기도 전에 건설비의 借款 元利金에 대한 상환일자가 다가옴은 물론 때마침 불어닥친 제2의 Oil Shock에 의해 파산직전까지 다달았다.

'79년 5월 25일 속칭, 5·25 조치에 의해 현대양행은 현대중공업에 引受되었으며 '80년 8월 정부의 重化學투자 조정에 의해 公營化되었다.

당시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貸出金을 모두 資本으로 전환하여 지불이자를 탕감시켰으며 한국 전력으로 하여금 새로이 出資케하여 자본금을 대형화했다. 창업주였던 鄭仁永씨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명실공히 공기업체로서 새로운

出帆을 하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發電設備産業의 合理化基準을 마련하여 한국중공업(주)을 국내 유일의 발전설비 메이커로 一元化시켰으며 余他 國內재벌회사들은 발전설비분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國內 發電設備 市場은 협소한데 업체들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에 의해 과잉투자가 유발되지 않도록하고 有限한 國家財源의 과학적 투자를 막아 자원의 效率의 投資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累積된 赤字

정부의 合理化 기준에 의해 發電設備産業이 韓重에 一元化되었다고는 하나 한중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 즉, 일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發電設備전문업체로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人力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長期電源開發計劃에 의한 일감(發電所건설)이 나오지를 앓았던 것이다.

일감은 없는데 경상유지비와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存立基盤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해마다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갔다. 아무리 有能한 경영자가 모든 임직원 전체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 맨다해도 적자는 불가피했다.

자연히 자본금을 잠식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언젠가 發注될 것이 틀림없는 일감을 눈앞에 두고 직원들을 줄인다든지 하는 減量經營을

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최소한의 人員과 技術蓄積은 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참다못해 '83년에는 일부 공장을 매각 負債規模를 줄이기도 했었다. 重裝備공장과 군포의 공장을 팔아 일부 빚을 정리하고 人員도 축소시켰다. 그러나 역시 收入源이 없는 때문으로 赤字는 여전했다.

'80년 이후 '89년까지 자본금 4,210억원을 상회하는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이 4,300여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여기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韓重을 살리는 길은 公營體制로서는 不可能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교육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民營化 推進이었다.

국내 재벌사들로 하여금 指名 競争入札을 실시 응찰토록 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2次に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사간에 눈치 싸움만 벌이다가 中途탈락함으로써 유찰되고 만 것이다.

◎ 第2의 出帆

재벌사들의 不應으로 민영화 촉진이 좌절되자 정부는 方向을 180도 선회하여 韓重을 公企業體로 다시 育成하기로 하고 제반후속조치를 취했다(90. 1월). 부족자금을 해소시키기 위해 1,000억 원을 追加로 증자시키는 한편 경영진을 교체, 민간인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했다(90년 2월).

정부의 정책전환과 경영진을 개편하자 회사는 급속도로 새롭게 變身하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인 단 1년만에 회사의 제반 경영지표는 黑字街道로 들어섰고 회사분위기는 一新되어 1년전에 비해 격세의 감을 느낄 정도로 변모했다.

“한많은 경영정상화, 이번만은 풀어보자”는 한 맺힌 절규를 담은 플래카드가 회사내에 부착되면서 전 임직원들이 이번만은 정상화를 기필코 달성 하자는 분위기가 스스로 확산되어 갔다.

아침 6시 40분이면 과장급이상 간부진의 출근이 완료되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들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저녁 8시~9시까지 일을 하고 지난날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분위기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기 시작하였으며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가위 놀라운 변신이다. △일감확보 △전문경영인 영입 △노사화합 이 세가지가 韓重의 찬란한 변신을 유도한 것이다.

韓重은 올해 드디어 10여년간의 적자를 벗어나 처음으로 흑자를 내는 黑字元年을 맞게 되었다.

'91년도 經營目標에 의하면 受注 1조6천550억원, 賣出 1조3백80억원, 當期純益 500억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重工業體가 賣出을 1조원 달성한다는 것도 큰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가 흑자가도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韓重은 향후 계속적인 黑字를 내어 그동안 잠식했던 資本을 만회하고 國民의 企業으로 그 이익을 社會에 還元시키는 것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다. 즉, 향후 2~3년內에 從業員 持株制를 실시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主人意識을 갖게 하고, '96년경에 企業을 完全히 공개 國民기업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企業收支上의 黑字化 뿐만이 아니라 技術上의 自立化, 기업이 갖춰야 할 對外競爭力을 갖추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하여 名實相符한 經營正常化 달성을 금후의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發電設備 産業 분야에서 아직도 선진국의 先發메이커들에 비해 設計技術이 뒤져 있으며 그들의 技術從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設備가 우수하고 공장이 대단위 공장을 갖고 있다 해도 技術力이 모자라면, 경쟁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韓重은 賣出額의 2% 수준까지 技術分野에 투자, 이같은 부분을 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기간은 約5年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韓重이 진정한 의미에서 國際競爭力을 갖추어 先進 메이커들과 대등한 위치에 이를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발전소를 싸게 짓는 길이며, 발전설비 산업을 완벽한 궤도에 올려놓는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